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로버트안톤윌슨
성자유
왜그것을두려워하는가
1962 년

**kr.theanarchistlibrary.org**

# 성자유

## 왜그것을두려워하는가

로버트안톤윌슨

1962 년

성자유를신념하고, 진지하게대변하며실행하는자들은언제나소수였다. 모든문명사회의남성과여성다수에대해적용가능한하나의일반화가있다면, 그것은그들이다른무엇보다, 심지어죽음보다성자유를더두려워한다는것이다. 이것은인간본성에관한중대한미스터리라할수있다. 더적확하게는, 이영역은프로이드와라이히부터마르쿠제와브라운까지의심리학자들이가장진지하고깊게탐구해온영역이기도하다.

서머힐학교의창립자인 A. S. 닐은어느문명사회에서남성이두려움이나처벌에대한걱정없이동성애를행할수있는지질문받은적이있다. 닐은그러한장소는없다고말했다. 이에더하여닐은남성이처벌에대한걱정없이이성애를행할수있는장소도알지못한다고말했다. 알버트엘리스박사에따르면, 동성애자들은그들이반-동성애적문화에서살기에고통받는다고생각하지만, 사실우리가반-성애적문화에살기때문에모두고통받는다는것이다.

현대의심리학을제쳐놓고, 직관적이고단순하게바라보자. 왜“서민”들이성자유를두려워하는가? 그들은어떠한비합리적인터부에복종하고, 타인에게부과하려하는가? 그들은뻔한말로대답할것이다. 서민들은“성자유는아나키와질서의붕괴를낳을것”이라고말한다.

이뻔한말을뻔하게부정하게전에, 잠시만생각을돌려보자. 현대아나키즘을건설한미하일바쿠닌은『신과국가』에서“신”이없이국가는불가능하다고서술한바있다. 그는프랑스공화국과미국을예로들었다. 이두국가는모두자유사상가와무신론자에의해건국되었지만, 얼마지나지않아통치의실질적문제를맞닥트리면서“신”이라는관념을빠르게받아들였다. 빌헬름라이히의『성혁명』과『파시즘의대중심리』는국가주의와권위주의는일반적으로교조주의와섹스에대한공포와융합함을드러낸다. 반면반국가주의와자유의지주의적태도는일반적으로자유사상과친섹스적태도를가진다. 아도르노의걸작『권위주의적성격』은라이히의명제에대한통계적증거를제시한다. 통치자는, 그의신민들이미신적이고종교적이며섹스를두려워할때더쉽게복종을강요할수있다.

그이유는이해하기쉽다. 섹스에대한부정은거의불가능한일이다. 그리고예수회가프로이트보다더전에알아차린것처럼, 금욕주의자가스스로의육신을“정복”했다고생각하는그순간에도, 욕망은다른방향에서그의안에침투하여그를장악한다. 그렇기에성부정의필연적결과는죄악감이다. “선하다”고믿는것을행하지못하는것으로부터오는특별한죄악감이다. (중세의수도승들은이행하지못함은“영혼의어두운밤”이라칭하곤했다.) 그리고죄악감에휘말린인간은조종하고강제하기쉽다. 자존감이야말로자주성과반란의전제조건이지만, 죄악감에휘말린인간은자존감을가질수없기때문이다. 현대의광고는마치보석을감싸고있는자물쇠마냥이사실을감싸고돈다. “B.O.” 광고나”44 킬로그램짜리약골“광고부터당신을”전부깨끗하게“만들어줄비누광고까지, 광고들은자기의심과

죄악감을함축하고있다. 그리고이죄악감은광고주의만병통치약을통해치료될수있을것이다. 비록그죄악감을만들어낸것도광고주와광고대행사지만말이다.

무엇보다, “통치 (정부)”란무엇인가? 통치란 A 를 B 가통제하는것이다. 다르게말하자면, 한인간의의지가다른인간의의지에대하여부차화되는것이다. 우리는통치되지않는사회는불가능하며, 이의지의부차화는필요불가결하며불가변적이라고배워왔다. 그리고우리는이를수인해왔다. 하지만인류학은다른이야기를한다. 인류학자케슬린고프는“사회적형태로써의국가는인류사의 200 분의 1 정도의기간에만존속했다… 아마도국가는인간사회의형태중가장짧은기간만존재한것일지도모른다.”[1] 우리가아나키라부르는것, 이를테면자발적연합이나머지 200 분의 199 를차지한다. 그렇기에래트레이테일러가『역사에서의성 Sex in history』에서적은바, 이국가전단계의사회는성적으로억압되지않았고, 성자유를두려워하지않았다는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인간의강요된순종, 즉국가의의지에대한사회적예속은총체적스트레스로이어진다. 현대정신병리학은모든생명 (원형질) 은겔 (총확산) 과솔 (총수축) 사이의전기-규소적평형을포함하고있음을분명히한다. 그리고달팽이나거북이에게서, 공포에움츠리는인간유아에게서가시적으로드러나는것처럼, 스트레스는수축을유발한다. 이물리적신체의수축은우리가“불안”이라부르는것이다. 수축이만성적이되면, 그것은근육에영향을주어“등이굽은”모양을만들어낸다. (배우들이겁먹고몰락한인간을표현할때이러한모양을이용한다.) 이“패배의자세”는모든국가에의해지배되는상황에서드러난다. 반면폴리네시아나아메리카원주민들 (식민시대전) 처럼국가가존재하지않는경우, 두드러지게적게드러난다.

하지만물리적인“움츠러든공감각”의순종적측면인“만성불안”은방어적태도와통제의철학을낳는다. 그리고통치 (정부) 는이통제의충동을가장세련된방식으로활용하는것이며, 전쟁이야말로가장잔혹하고궁극적인통제의형태가된다. 어떠한정부도그신민들을전쟁에몰아넣지않고한세대이상을유지하지못했다. 평화주의자인간디에의해세워진정부조차, 그의죽음이래 8 차례의전쟁을치렀다. 오래지속되는정부의경우, 평균 1 세기에 4 회의전쟁을치렀다.

아무농부나붙잡고물어보라. 거세마는종마보다통제하기쉽다. 노예국가였던최초의정부는이를위해성억압을창조했다. 노예들에게죄악감과자괴감을심어주어위압하기쉽게만듦과동시에, 성억압은근육의수축그자체가된다. 그로덱이『그것에관한책 The Book of the It』에서

[1] The Decline of the State, by Kathleen Gough. Correspondence Publishing Company. 1962.

보여주었듯, 인간은복근을수축하지않고는의식에서욕망을제거할수없다. 닐이말하는것처럼성억압은“심각한복통”이다. 성기가그활발한활동을멈추게하는유일한길은그것을복부의장갑으로활동을죽이는것뿐이기때문이다. 빌헬름라이히는이것의궁극적함의를잘보여준다. 라이히는“문명화된”인간의성질이라할수있는만성적근육수축은물리적고통과정신적불안의과정이라지적한다. 이를통해우리는사회적행동의두가지거대한미스터리를이해할수있다. 왜성억압이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왜정부가받아들여지는지말이다. 전자는기쁨을없애고, 후자는종의파괴를가져온다. 복종은몸에각인된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거쳐계속되는반성애적교육은근육의긴장상태를만들어반란시도를고통스럽게만든다. 이것이야말로동성애자들과성해방적이성애자들이두드러지게“신경질적”인이유다. 이들은사회적비난과동시에그들의근육이예속과복종을강요하는“비난”역시감내해야한다.

프로이트의비관론은내가물리적으로묘사한과정에대한심리학적이해로부터비롯한다. 프로이트는“인간은스스로의수인 (囚人) 이다”라는우울한결론을최종적으로도출한다. 하지만근래의사상가들은이와는다소다른결론을내린다. 라이히의『성혁명』, 브라운의『죽음에맞선삶』, 마르쿠제의『에로스와문명』은모두“억압없는문명”을꿈꾼다. 그리고이세책모두그문명은국가가없는문명이어야함을인지한다.

망쿠스콜로라도의살해와코키셰 (Cochise) 의배신이발발하기전까지, 아파치부족의사회는이러한자유로운문화의예시를보여준다. 결혼전까지모든부족원은성적으로자유로웠고원하는만큼즐길수있었다. (이혼한이후에도동일한수준의자유가부여되었다.) 그리고만약부족장이원하는바에동의하지않는부족원이있다면, 그는다른아파치부족에가입하거나그의동지들과함께새로운부족을시작할수있었다. (코키셰가미국정부와협정을맺었을때제로니모가한것이이것이다.) 이로써아파치부족은아나키스트들이자유연합이라고부르는형태로묶였으며어떠한권위주의적국가체계도갖추지않았다.

기술적으로더욱진보한사회에서도동일한원칙은적용될수있다. 프루동의유명한아나키즘에관한공식인“국가를경제기구로격하하는것”은기본적으로자발적인계약에따른조직으로비자발적이고압제적인국가권위를대체하는것이다. 이러한체계에서, 개인이어떠한자발적연합에가입하건간에그것은본인의자유의지의표현이된다. (자유의지에반한다면, 가입을하지않을것이다.) 이러한비국가문명은비국가모임, 부족, 씨족들과마찬가지로성적으로자유로울것이다. 성적억압은어떠한사회적기능도가지지못할것이다. 죄책감과복종을창조할이유가없을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사회상은“유토피아적”으로보일지모르겠지만그렇지않다. 그리고노먼브라운이말한것처럼인류의생존자체가“유토피아적망상”



이되어버린현대사회에서“유토피아주의”는비난할수있는것이아니다. 노버트웰너가예측하고, 케이틀린고프와알리마르쿠제가기뻐하면서도두려워한것처럼, 자동화는노동의필요성이거의없는풍요의사회를가능하게했다. 현대과학의두위대한성취, 즉원자력과자동화는전통적인간상을그종언으로몰아붙이고있다. 만약우리가개인으로써살아남을수있다면, 우리의문화는살아남을수없다. 인간대중이더이상“피땀어린노동으로”생존해야할필요가없다면, 사회적억압의주된지지대는무너져내린다. 물론대규모실업과거대한굶주림은과거에도발생했고, 그럼에도지배계급은여전히지배계급으로남을수있던것이사실이다. 하지만우리가지금바라보고있는대규모실업은이전의“공황”에따른실업을아득히초월하는것이다. 그리고이에대한희망도구원도없다. 새로운일자리는생기지않을것이다. 물론지배계급은이로인한굶주림이역사적수준에이르도록내버려둘것이다. 그리고물론근육적으로억압된대중은, 복종과자기부정으로조건지어진대중은, 일부반란분자를제외하고는, 언제나그러했던것처럼이를수인할것이다. 하지만언젠가는, 아마도식인이시작될즈음에는, 억압에근거한문화의체계는붕괴할것이다. 그리고험프티덤프티가그러한것처럼, 누구도그것을다시세우지못할것이다. 지금살아있는자들은이것을볼수있을지도모르겠다.

미래 (그런것이있다면) 의억압되지않은인간들은우리의시대를돌아보고우리가어떻게정신병원에가지않고살아남았는지놀랄것이다. 그리고정신병원에가게된사람들이이억압의문명의자연스러운귀결로여겨질것이다.